

# “구구” 닭고기 · 계란 먹으러 모여라!



▲ (좌부터) 대한양계협회 이준동 회장,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 이상진 원장, 한국계육협회 서성배 회장, 계란홍보대사 텔런트 한재아, 농협축산지원부장 오세관, 한국양계농협 오정길 조합장,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 안승춘 회장, 한국계란유통협회 최홍근 회장, 한국오리협회 김용진 전무



▲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점화식

지난 9월 9일 농협 가금수급안정위원회에서는 서울 명동 우리은행 앞에서 구구데이(99-Day) 행사를 실시하였다. 구구데이는 예로부터 시골집 앞 마당에서 키우는 닭을 불러 모을 때 “구구”라고 하던 것에서 의미를 따와 매년 9월 9일을 「모두 불러 모아 닭고기와 계란을 먹는 날」로 하자는 의미로 닭고기와 계란의 소비촉진을 위해 2003년도부터 시작해 올해로 6회째를 맞이했다.





1 노름마치의 타악 퍼포먼스 2 계란 홍보대사로 위촉된 한채아  
 3 시민들은 짚으로 계란꾸러미 만들기 행사에 참여하며 계란 한 알이 귀했던 옛 시절을 떠올렸다.  
 4 옛날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계란송을 부르는 행사를 진행해 지나가는 시민들의 관심을 받기도 했다.

이번 행사는 노름마치의 타악 퍼포먼스로 행사의 시작을 알렸다. 오픈공연에 이어 계란형 미녀 탤런트 한채아가 계란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앞으로 우리 계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데 앞장서기로 했다. 또한 짚으로 계란 꾸러미를 만드는 시민 참여행사와 함께 70년대 교복을 착용한 연기자들이 추억을 되살릴 수 있도록 계란도시락을 먹으며 계란송을 부르는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다.

행사장에서는 닭고기와 계란을 이용한 요리와 농협 목우촌에서 운영하는 토레오래 치킨 무료 시식행사가 열려 지나가는 시민의 발길을 붙잡고 눈길을 끌었다. 또한 구운란과 약으로도 사용하였다는 초란을 나눠주며 계란의 우수성을 알렸다.

▼ 계란을 나눠주는 이준동 회장

▼ 시민에게 구운란과 계란의 영양성을 실은 홍보 전단지를 나눠주기도 했다.

